

김찬중(金瓚中)



1958년 경기도 기흥 출생.

1990년 “고온 산화물 초전도체 합성”연구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재료공학과에서 박사.

1993년 미국 인디애나 노트르담 대학(University of Notre Dame)에서 박사후연구자(Postdoctoral Fellowship) 과정.

2010년 일본 동경 시바우라 공과대학(Shibaura Institute of Technology) 교환교수.

2013년 한국원자력연구원 영년직 책임연구원.

2013년 코이카(KOICA) 과학기술 전문위원.

2016-19년 (사단법인)나눔과기술 공동대표.

2017-18년 한국초전도학회 회장

2019년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겸임교수

2019년 한국공학한림원 해동상 수상, 소외된 계층 대상 공학교육문화 확산 공로

2021년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 SCI 국제학술잡지에 초전도 관련 150 여 편의 학술논문 게재
- 25년간 청소년 과학 강연자인 ‘과학기술 앰배서도(Ambassador)’ 활동
- 온라인 초전도 카페 ‘꿈의 소재, 초전도(<http://cafe.naver.com/supeconductor>)’ 운영자
- 소외된 90%를 위한 청소년 적정기술 경진대회” 대회장 역임
- 소외된 90%를 위한 대학생 경진대회 기획
- 몽골, 중국(연변), 라오스, 캄보디아, 아프리카 차드 등에서 적정기술 활동

저서

“36.5도의 과학기술, 적정기술(2011년 허원미디어),”

“적정기술, 현대문명에 길을 묻다(2013년 허원미디어),”

“청소년과 함께 하는 나눔과 배려의 적정기술(2018년 허원북스)”

“초전도 꿈의 물질(2015, 하늬바람에 영글다),”

“눈으로 보는 양자역학, 초전도 과학교실(2017, 하늬바람에 영글다)”

“Superconductor levitation (2019, Springer)”